

2008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농가

대진농장 - 이희철 농가

서울지역본부 과장 김영신



이희철 대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대진농장(대표 이희철)은 매년 연말에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시행하는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시상식' 돼지부문에서 2007, 2008년도 2회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한 농가로 금년에는 한국양돈연구회의 전국 각 분야별 1등 농장(MSY, 등급, 인력관리)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총 사육두수 2,100두(모든 155두)로 농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탄탄한 사양관리로 양돈분야에 선두농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아들(이창번 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4년째 농장일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며 아버지의 경륜과 아들의 젊은 패기가 더해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농가다.

대진농장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대진농장은 아직도 20년째 사용 중인 돈사 시설이 있는 농장규모 13,223m²의 외관상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농장이지만 2008년 농장의 MSY(모든 두당 연간출하두수) 23.3두로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 성적을 거둔 농가다. 이런 성적을 보면 '무언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그 특별함이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 들이다. 그 중 가장 큰 비법은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원론적이며 교과서적인 사양관리를 최대한 농장에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하 후 돈방 청소를 깨끗이 하여 돈사의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이 사료 섭취를 기피할 때 그 이유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돈사의 경우 설사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해결하고 적절한 온도유지와 수시로 전등을 점검하여 늘 좋은 환경에서 자돈이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 비육돈사의 경우 하루에 3~4차례 돌면서 그 때 그 때 개체별 사료 섭취량을 체크 후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여 먹다 남은 사료가 쌓여 부패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비육돈 출하 시 출하 1주일 전에 사전 점검해 180일령, 생체중 117kg에 도달한 개체만 출하하여 일정한 돈육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육 중인 돼지의 개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으로 인한 폐사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또한 자돈 개체성적을 일일이 기록하고 모돈의 상태와 포유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철저한 기록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사료회사를 통한 농장 컨설팅으로 시설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농장 담당 수의사에게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농장 자체적으로 질병조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가능해져 대진농장은 이로 인해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진농장이 이런 높은 성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농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성실함과 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

아버지 뒤를 이어 대진농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아들 이창번 씨는 축산물 개방화 시대에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양돈 생산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공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모든 400두의 대진농장을 규모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더욱 매진할 것을 밝혔다.